

호남 신당파 ‘安風’에 ‘미풍’ 되나

호남 탈당의원들 합류 블랙홀...추진 세력 입지 크게 위축 千 “창당후 연대 모색”...박주선·박준영 오늘 통합 입장발표

안철수 의원이 독자 신당 창당에 나서면서 전정배·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기존 신당 추진 세력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아권의 대선 주자인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독자 신당 창당 선언으로 야권 신당 구도의 균형추가 사실상 크게 기울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정치연합 탈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안철수 신당 합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도 자존심이 상하는 지점이다. 특히, 안 의원이 제3차대 통합신당이 아닌 독자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연대의 길을 열어놓은 것도 호남의 신당 창당 추진 세력에게 당혹스러운 부분이다. 말은 ‘연대’지만 사실상 안철수 신당으로의 통합이나 흡수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신당 추진 진영에서는 일단 창당에 나선 뒤, 내년 2월 안철수 신당과의 연대 및 통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정배 의원 진영에서는 예전대로 창당 작업에 착수, 내년 1월까지 국민회의 창당을 마무리하고 안철수 신당과의 연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다음달 9일 전북도당에 이어 10월에는 서울시장 창당 대회 등을 차례로 개최하는 등 시도별 창당 작업에 착수한다. 내년 1월 31일에는 경기도 일산컨벤션에서 경기도당 창당 대회와 함께 마지막으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어 창당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 의원은 21일 야권연대를 위한 3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지금 야권이 여러 가지 혼미한 상황에 빠

져 있다”며 ▲가치와 비전의 연대 ▲반패권 연대 ▲승리와 희망의 연대 등 3대 원칙을 밝혔다. 천 의원은 22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연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3차대 통합신당 창당을 촉구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다. 박 의원은 이날 호남 민심이 독자적 신당이 아닌, 모든 야권 신당 세력들이 제3차대에서 원 샷으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감동과 지지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진영에서는 연말까지 신당 세력 간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체적 신당 창당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 신민당 창당을 추진중인 박준영 전 지사도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신당 세력의 통합 등

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한편, 원외정당인 민주당은 이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독자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이 창당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새정치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해 선거 연패를 거듭하다 사실상 파산에 이르렀다”며 “역사성과 개혁성을 상실해 파산에 이른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판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千 “가치연대 실현” 무소속 전정배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孫, 정계복귀 권유에 “청산에 살으리랴다”

영암서 지지자 송년회 참석...정치권 언급 회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기간 내 내 빈소를 지키다 지난달 26일 다시 강진으로 내려가 집거 모드에 들어간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20일 영암의 한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진 백련사 근처 손 전 고문의 흡집에서 겨울나기를 위한 장차 마련을 도우려고 결성된 지지자 모임인 ‘장작모임’ 회원들의 송년회 자리에서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등으로 촉발된 야권 지형 재편과 맞물려 손 전 고문의 복귀론이 설왕설래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외출

이라 관심을 모았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장작모임 회원 100여명과 막걸리를 마시며 송년회를 한 자리에서 행사에 참석한 이계호 의원(당양·함평·영광·장성)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재선이야. 다른 건 생각하지마”라고 덕담을 건넸다고 이 의원이 21일 전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이 의원은 “손 전 고문 자신이 (정계복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느 당으로 가라, 누구를 따라가라고 했을 것”이라며 “복잡미묘한 정치적 현안에 초연하라는 의미가 아니었

겠느냐”고 설명했다. 송년회에서는 정계복귀를 하라는 권유도 나왔지만, 손 고문은 막걸리를 마시며 “살으리 살으리랴다. 청산에 살으리랴다”라는 가사의 ‘청산별곡’을 부르며 답을 대신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표나 안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야권 내홍과 맞물려 ‘손학규 차출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내

년 총선 때까지는 정치권으로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다”라며 집거 기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손 전 고문이) 지금 정치세력이 재편되는 상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떤 의견도 주지 않고 계신다”라며 “명확한 지침을 주셨으면 편할 것 같은데, 요청을 해도 소이부답(笑以不答)”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손 전 고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선, “그런 걸 보고 짝사랑이라고 그러냐”며 웃어넘겼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4·13 총선 현장

“목포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실천과제 제시

‘목포’ 유선호

유선호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한중 FTA와 목포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와 목포에 3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유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중국 장자도 그룹은 한중FTA에 대비, 2012년 진도에 1100억을 투자해 수산물 가공



공장과 전복물류센터를 건립했는데, 2016년 완공된다”며 “목포를 대중국 고부가 농산물 수출의 전진기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목포에 국제해양관광특구를 조성해야 한다. 한중FTA는 목포에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역민 의견 수렴 ‘삼십리 민심탐방 투어’ 시작

‘광주 북구’ 이형석

이형석 광주시 북구 을 예비후보는 21일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삼십리 민심탐방 투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주택가 골목길·상가·시장 등 하루 평균 10km 가량을 걸어다니면서 지역민을 상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이 후보는 ‘광주역 해법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 “광주역 부지에 시교육청·북구청·북부경찰서 등을 이전해 복합행정타운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하루 1000명 악수하기’ 주민들과 스킨십 강화

‘광주 남구’ 김명진

김명진 광주시 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유권자 하루 1000명 악수하기’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 후보는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이후 매일 인력대기소 방문을 시작으로 백운사거리 출근인사, 10인 이상 모임행사 참석 등 하루 1000명 악수하기를 목표로 ‘골목



길 경정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탈당, 창당 등 중앙정치권의 변화와 선거구 획정 논란 등으로 눈치보기를 하는 동안 시민 속으로 뛰어들어 바로 뛰는 선거운동으로 주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 공천률 특별기구 인선 완료

홍문표·박종희·권성동 등 13명...계파별 안배

새누리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당내 공천방식을 논의할 특별기구 인선안을 의결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특별기구에는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했으며, 이밖에 9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9명은 재선의 김재원·이진

홍 위원장을 제외한 12명을 계파별로 구분한다면 친박계 6명(박종희·김재원·강석훈·김도읍·김태홍·박윤옥)에 비박계 6명(홍문표·권성동·이진복·홍일표·정미경·김상훈)으로 계파별 안배가 고려됐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같은 계파 간 균형이 결국은 향후 특별기구에서 논의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벌써 친박계와 비박계는 주요 공천률 쟁점을 놓고 견제자를 보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G여성만세예금”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